

여수, COP28 유치추출범

여수세계박람회장서 전남도지사 등 1500여 명 참석

위원 위촉장 수여·결의문 낭독·유치기원 범국민 서명·홍보관 운영 등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유치위)가 16일 오후 출범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COP28 유치위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상영, 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은 식전공연을 통해 출범식의 문을 열었고, COP28 유치 홍보영상 상영과 남중권 지자체 깃발 입상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OP28 공동유치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20여 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앞서 유치위는 공동유치

치위원장에 허상만 순천대 웰빙지원학부 석좌교수와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 류중구·조세윤 등서창조포럼상임위원장(전남·경남)을 선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환영사에서 "COP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가면 세계박람회의 감동을 재현하고, 남해안남중권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화합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상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축하영상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를 기원했다.

이날 유치위는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로 푸른 하늘을 되찾자'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유치위는 결의문을 통해 COP28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선언이 살아 숨 쉬는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순회봉사에 대한 성과보고회



고흥군은 13일 마리안느마케트 나눔연수원에서 군민불편사항 해소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어깨동무봉사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도양읍 동봉마을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한 어깨동무봉사단이 11월 26일 대서면 신기 마을을 끝으로 올해 총 16회, 65개 마을 순회봉사를 모두 마치고, 성과보고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송곡군 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봉사 참여 업체 및 봉사단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 활동 영상 상영,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봉사자 활동 후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 해 동안 봉사단을 이끌 어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기관

표창 2개소, 고흥지역자활센터 칼같이 팀 등 11명의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봉사자 활동 후기 시간에는 가스안전점검과 열악마사지 분야에 서 일년 동안 군민에게 봉사한 소감과, 개선 보완사항 등을 진솔하게 발표 했는데 봉사자 모두는 1년간을 회상하고 또 개선과 보완사항은 다같이 공감했다.

어깨동무 봉사단은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교통 불편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드리고자 군민들 삶 속으로 찾아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

봉사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마음, 칼같이, 농기계, 가전, 양?한방치료 등 23개 분야의 생활민원 위주로 선정, 17개 기관, 단체 등 봉사자 56명이 16개 읍면 마을 구석구석 월 2회씩 순회 봉사했다.

올해 총 8,220건의 민원을 해결, 회당 평균 513건이며, 도화면 신기 마을이 691건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돌보기가 1,573건으로 선호도가 제일 높은 분야였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송곡군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봉사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다"면서 "봉사와 나눔을 통해 행복바이러스를 전달하고 계시는 봉사자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고흥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창패를 받은 봉사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으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내년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군민들에게 23개 분야의 봉사를 펼쳤는데 내년에는 신규서비스를 추가로 발굴, 실효성 있는 봉사 활동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2월 25일 풍양면 고곡리를 시작으로 16개 읍면 71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사상 최대 규모 예산' 보성군 2,982억 원 사업비 유치

공모사업 80개 분야...작년 대비 3배 이상 신장

보성군이 올해 81개 공모사업에서 총사업비 2,982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961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백억 원대의 굵직한 사업이 다수 선정되며 민선 7기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사업(480억 원), ▲어촌뉴딜(141억 원),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410억 원), ▲별교 문화복합센터(290억 원), ▲하수도 정비사업(954억 원), ▲입산물 소득원 경영실습센터(98억 원)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려는 전라남도 도정 방침과 정부 발전 기조와 발맞춰 사업을 기획·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시책 논리를 완성하고 사업 추진 안정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문화관광, 농림어업,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이 치우침 없이 고루 분포돼 있어 균형 발전 측면까지 고려됐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보성 간 전철화 사업, △송정-보성-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보성군이 전남을 넘어 남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수-보성-목포를 잇는 거점 관광지로 보성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사업으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도시 활력을 되찾겠다"면서 "사업들 간에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곡성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로 환경 개선



곡성군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도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군 입면 매월제 일일 군도 6호선의 경우 총 2.3km의 공사구

간 중 올해 상반기에 0.8km 구간 공사를 완료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면에서 결면과 입면

을 연결하는 도로기반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삼기 의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5구간 총 연장 3km에 달하는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기도 했다. 해당 구간들은 도로 폭이 협소해 농업활동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곡성군은 이번 농어촌 도로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